



대만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정부의 방역대책

배 상 호
농림부 가축위생과장

1. 서론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사슴 등 발굽이 갈라진(우제류)동물에 피해를 주는 급성전염병으로 전파력이 강하고 병원바이러스의 혈청형이 많아서 방역이 극히 어려우며 축산업에 가장 피해를 주는 중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된 국가로부터는 가축이나 축산물을 수입금지조치하고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전염병이 1997년 3월 20일 대만에서 발생되었다는 보도는 우리 축산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축산농가의 방역관리에 경종을 울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구제역 발생사실이 보도된 이후 정부에서는 즉각 다방면으로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대만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및 반송, 검역 강화 등 일련의 긴급방역조치를 취하였다.

대만의 구제역 발생에 대한 우리 축산업계의 반응은 수출측면에서 좋은 기회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세계 경제가 WTO(세계무역기구)체제로 전환된 이후 금년 7월1일 이후 돼지고기 등이 완전개방될 시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만의 구제역의 발생은 곧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본다. 만약에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된다면 그 피해규모는 외국의 예로 보아 국내 축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며, 대만의 경우를 보아도 최악의 경우 상

당기간동안 양돈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구제역은 소에 더 감수성이 높은 질병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우와 낙농업계에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취해왔던 방역정책내용, 대만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조치내역과 외국의 최근 발생사례 등을 낙농육우지면을 통해서 낙농업계에 설명드리는 한편, 관련업계, 학계, 방역관련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있기를 기대한다.

2. 구제역 감염시 소의 임상증상

구제역 바이러스는 소의 호흡기를 통하여 침입하여 점막이나 피부의 상피조직에서 증식되어 입술, 혀, 잇몸, 치근부위, 유방, 유두, 발굽사이 등에서 열감이 발생하고 이들 부위에서 1mm에서 3cm정도의 수포(물집)가 생기며, 이 수포안에는 투명한 노란 액체가 들어있고, 수포가 터지게 되면 심한 통증으로 사료를 못먹고 이병에 걸린 소는 건기를 싫어하고 무리하게 건게하면 질룩거리며 심하면 발톱이 탈락되기도 한다.

젖소는 특히 산유량이 50%이상 감소되고, 사료 효율 저하, 유통상의 피해등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병이다.

3. 과거 구제역 발생국의 사례

가. 이탈리아

1993년 2월 28일 이탈리아 Potenza와 Basilicata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면양, 산양, 돼지, 들소중에 상당한 타격을 주어 11,441두를 살처분하였고 8,778천불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전염경로는 크로아티아지역의 소가 이동되어 전파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그 혈청형은 구제역 바이러스 O₁형으로 판정되었다. 1993년 4월 22일까지 정부의 살처분보상금은 8,260천불이며 사체처리, 소독등에 소요된 경비는 3,200천불이 소요되었고, 가축시장과 유통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금액은 10배가 넘는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1991년 8월에 구제역백신접종을 중단하였는데 그전까지 한해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이 14,600천불인 것을 감안하면 사회적인 제비용을 제외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에도 구제역 방역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나. 그리스

1994년 7월 31일 영국의 국제수역사무국이 인정하는 영국의 Pirbright구제역실험실에서 확진한 후 그리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1994년 8월 1일자 국내 5개 주, 90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발생이후 '94. 9. 16이후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나 소 1,600두와 양 8,500두 및 돼지 80두가 감염되었다.

유럽연합(EU)은 1994년 8월 8일 그리스로부터의 모든 우제류동물의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고,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은 EU정부에서 70%, 그리스 정부에서 30%씩 부담하여 총 2,800천불을 해당 농가에 보상하였다.

4. 대만의 구제역 발생상황 및 피해내역

대만의 구제역 발생상황은 '97. 3. 10.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97. 3. 19. 2개현 3개농장 1,570두(615두 폐사)가 구제역으로 처음 확인된 이후, '97. 4. 16. 현재 구제역 발생상황은 17개현



3,760여개 농장에 3,084천두가 감염의심되고, 폐사두수는 126천두이며, 살처분두수는 1,687천두이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O₁형으로 밝혀졌다. 피해액은 대만CNA 보도 내용에 의하면 약 9조원으로 추정되며, 대만 경제성장률의 1.4%가 하락될 것으로 보도하였다. 돼지고기 일본수출금지로 인한 손실액은 미화 15억 5천만 달러이며, 실업자는 18만명이 발생될 것으로 추측하였다.

대만정부에서는 현재 예방약품을 긴급수입하여 접종중에 있으나 그 피해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농촌경제연구원에 비공식적으로 의뢰한 경제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피해상황을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기를 2000년으로 추정할 때 현존피해액이 4,321억 대만달러, 원상 회복기간 중 피해추정액이 95,533억 대만달러 총 13,853억 대만달러로 이를 환산하면 한화 약 42조원으로 추정된다.

※ 대만양돈현황

- 총1,050만두(26천 농가) : 대만농업 총생산량의 21%(미화 32억 4천만 달러)

5. 정부의 구제역 방역내역

가. 그동안 정부의 방역조치 내역

그동안 해외악성전염병 국내유입을 막기 위하여 정



방역대책

부가 추진한 대책은 '93. 1월 수의과학연구소에 해외 전염병과를 신설하여 해외악성전염병에 대한 연구 및 기술교육에 주력하였으며,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도안전 차폐시설"을 '96년 1월 준공하여 구제역 진단과 악성전염병 연구시설을 갖추었으며, 국립동물검역소의 검역시설, 검사장비, 검역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92~'95년 제1단계 검역기능 강화대책을 완료하였고, '96년부터 제2단계 검역기능 강화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50백만원 예산으로 '96.12월에 구제역백신(A, O, C 3종)5만두분을 구입하여 해외전염병연구센터에 비축·보관중이며, '97예산으로 5만두분을 추가로 긴급구입에 있다. 대만의 구제역 발생 보도 이후 구제역 방역을 위한 부문별 긴급조치내역을 다음과 같이 약술한다.

[행정조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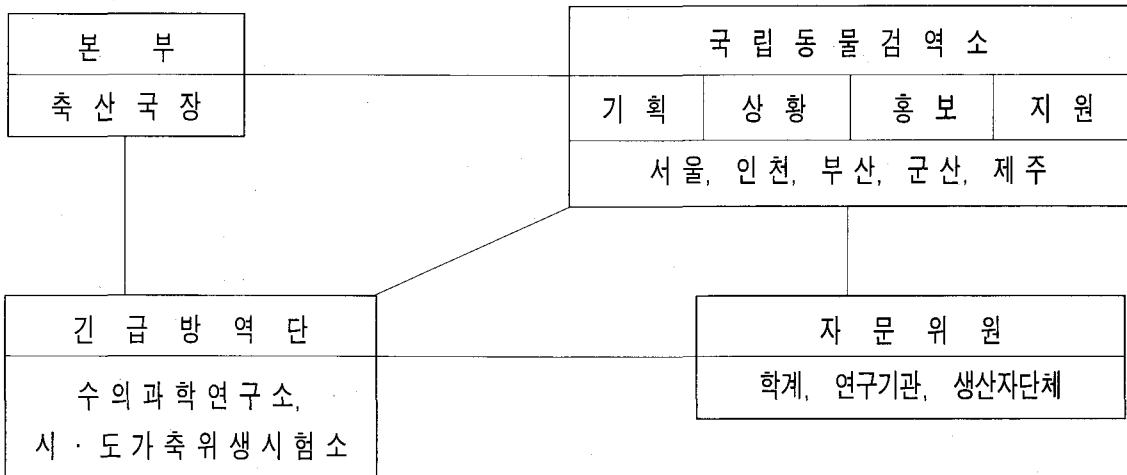
- 대만산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금지('97. 3.20)
- 주한대만대표부, 외무부, 국립동물 검역소, 축산단체 등에 알림
- 대만구제역발생 관련 협의회 개최(3.22)
- 대만산 수입돼지고기 처리 및 대일수출대책
- 대만산 수입돼지고기 반송협의(롯데햄·우유등 10개업체)

- 주한대만대표부 관계관 면담(3. 24)
- 대만산 냉장돈육 반송에 따른 수출업체 수용등 협조당부
- 구제역 긴급방역단 구성(3. 26)
- 구성: 농림부, 국립동물검역소 수의과학연구소, 학계, 생산자단체등
- 대만산 돈육 195톤 반송(4. 9 현재)
- 구제역예방약 추가구매 및 진단키트 구입 방안 협의회 개최('97. 4. 9)
- 구제역 예방약 5만두 추가구매(기5만두 비축) 및 진단키트 2,000두분 구입 추진

[유관기관에 요청한 사항]

- 대만산 돈육반송 협조요청('97. 3. 22)
- 주한대만대표부, 외무부, 관세청, 수입업체(롯데햄·우유등 10개사)에게 대만산 돈육반송협조
-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밀수입 방지 협조요청(97. 3. 25)
- 건설교통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등에 중국등 동남아시아지역으로부터 쇠고기, 돼지고기등의 불법 반입단속 강화
- 축협, 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등에 구제역 발생 국가 여행시 양돈장 방문 자제 협조요청(3. 25)
- 해양수산부에 외항선으로부터 배출되는 잔반 소각처리 협조요청(4. 1)

구제역 긴급방역단 상황표



- '97. 4.22. 국무회의시 관련부처에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설명하고 불법반입되는 축산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협조 요청하였음

[검역강화 조치사항]

- 대만산 우제류동물및 그생산물 검역강화지시 (3.20)
- 돼지고기등 불법반입 방지를 위한 검역대책 수립추진(3. 25)
- 시·도가축위생시험소직원(50명)에 대한 구제역진단방법등 긴급기술 교육실시(3.25~26)
- 공항만 검역관 추가배치(11명→26명)로 휴대품 검역강화(3. 28)
 - 쇠고기, 돼지고기등 폐기조치 2,776kg(4. 8)
- 대만산 사료 및 여행객에 대한 검역강화(4. 3)
 - 구제역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여행객 소독협조 요청(보건복지부)
 - 건초, 짚, 볏짚등 수입시 소독 실시(동물검역소, 식물검역소)

[홍보실적]

- 대만구제역발생 보도자료 배포 및 설명 (3.20~21)
- 구제역발생국가 여행시 양돈장 방문금지 홍보교육실시
- 양돈농가 방역교육시 구제역발생관련 대책홍보
 - 포천, 안성, 홍성, 김제, 김해 양돈농가(1,310명)
- KBS, MBC TV 뉴스 방영(4. 2)
 -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 육류 밀반입 자제등
- 공·항만에 현수막 설치, 포스터 부착 및 관련 단체에 포스터 배부(2,000부)
- 동남아시아 여행객 및 국내 양축농가에 리후렛 배포(25만매)
- 김포, 김해공항, 인천항 전광판 자막안내 및 선·기내 방송
- 양축농가, 관련기관에 구제역 홍보 리후렛 배포 (5만매)

나. 금후 방역대책 추진방안

구제역 발생지역인 대만과 중국등 동남아시아 여행

객의 불법반입 휴대육류 등을 검사하여 공·항만의 검역을 강화하고, 해상을 통해 밀수입되는 육류반입 방지를 위해서 해양경찰청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발생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건초, 짚 등에 소독을 강화할 것이며, 만약에 국내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축질병 발생시 조기신고 체계를 강화하며, 구제역 유사증상 발견시 각 행정기관, 시도 가축위생 시험소, 수의과학연구소등에 신속히 방역조치 할수 있도록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양축농가에게는 구제역에 대하여 방역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대만, 중국등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경우에는 육류를 불법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양축농가나 축산 관계자들은 대만을 포함한 구제역 발생국을 방문시에는 가축사육농장 등의 출입하거나 방문을 자제해야겠고, 귀국후에도 농장출입시에는 최소한 2주이상 최대한 농장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5.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이 없는 청정지역이므로 만약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그 피해는 우리나라의 젖소, 한우, 돼지 등 축산업계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대만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구제역 전염병의 전파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확고한 박멸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국내 축산업이 송두리째 파멸될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겠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국내유입방지를 위해 모든 방역관련기관, 단체 등과 힘을 합하여 방역정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농가에서는 만일 인근에서 구제역 감염의심축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도 가축위생 시험소, 읍면, 시군 및 시도 등에 즉시 신고하여 정확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㉞)

<필자연락처:02-504-9438>